

근대화에 따른 세시풍속의 변동과정 (近代化에 따른 歲時風俗의 變動科程)

金 明 子

(安東大 民俗學科 教授)

目 次

- I. 머리말
- II. 민족(民族)의 수난(受難)과 세시풍속(歲時風俗)의 변화(變化)
- III. 광복(光復)이후 근대화(近代化)에 따른 변동양상(變動樣相)
 - 1. 산업화(産業化) 이전의 변동양상(變動樣相)(1945-1960년)
 - 2. 산업화(産業化) 이후의 변동양상(變動樣相)(1960-1979년)
- IV. 맺음말

I. 머리말

서구(西歐)와 달리 한국사회의 근대화(近代化)는 기술혁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서구의 근대화는 중세의 기술혁신인 산업혁명(産業革命)에 힘입어 이룩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근대화는 서구의 근대문명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접촉함으로써 비롯되었던 것이다. 근대화의 이러한 양상은 한 때 ‘구식(舊式)을 신식화(新式化)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일제시대에는 서구문명을 일찍 수용한 일본식인 ‘신식(新式)’으로, 광복 이후에는 주로 미국을 본 뜬 ‘서구화(西歐化)의 지향’이 표면화 되었다.

이렇듯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맞이한 변동의 양상은 엄청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변동의 모든 요인이 서구와의 접촉을 통한 문화접변(文化接變)에만 있다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급변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근대화 과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동은 필연적으로 세시풍속의 변화를 초래했는데 여기서는 세시풍속의 변동과정을 통시적(通時的)으로 추적함으로써 그 실상을 밝히고자 한다.

민속의 두드러진 속성이 정체성(停滯性)과 가변성(可變性)이다. 정체성의 측면에서 볼 때 자칫 민속이 고유하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면 정체된 ‘옛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민속이 전승된 생활양식이라는 점을 지나쳐 버린 결과이다.

민속(民俗)은 인간(人間)이 삶을 영위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가 언제나 수용된다. 대부분의 문제 해결이 한 개인의 사회화(社會化)과정에서 습득된 전통적인 지식에 의존할지라도 그 과정에는 어느 정도의 가변성(可變性)이 내재

(內在)된다.

이것이 곧 민속을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전승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要因)인 것이다. 이렇게 내재된 가변성은 사회(社會)·문화적(文化的)인 어떠한 계기를 맞으면 적응적(適應的) 변동을 일으켜 새로운 양상을 드러낸다. 물론 어떤 민속은 적응과정에서 생성력(生成力)을 잃고 역사(歷史)의 흐름 속에 묻혀 보리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인 큰 변화 속에서도 적응의 과정을 거쳐 지속되는 민속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왜 그러한 양식이 선택되었는가 하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것은 꾸준히 변화하는 사회·문화적인 조건(條件)속에서도 민속이 맥을 이어온 이유를 밝힐 수 있는 작은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화로 인한 세시풍속의 변동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의도를 충족시키기에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장애가 있다. 우선 관찰 그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변동은 시간 T₁에서 T₂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두 시점을 비교할 완벽할 모델의 구성이 사실 어렵다. 더구나 그 변동의 과정은 정확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경도잡지(京都雜誌)》《열양세시기(烈陽歲時記)》《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등 과거의 세시기(歲時記)와 세시풍속에 관한 단편적인 기록들이 전해오지만 ‘변동(變動)의 양상(樣相)’을 살피기에 충분하지 못하다.¹⁾

다음으로는 비교적 근세에 일어난 세시풍속의 변동적인 측면을 근대화에 따른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여기서는 근대화와 세시풍속의 변동이라는 한계를 전제하고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근대화의 사전적인 해석은 봉건사회의 뒤를 이어 자본주의 사회화가 되는것²⁾을 일컫는다. 역사적(歷史的)으로 근대화(近代化)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서구(西歐)와 북미(北美)에서 발전하여 여타 구주국가(歐洲國家)로 뻗어가고, 19세기와 20세기에는 남미(南美)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으로 펼쳐간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체계형태(體系形態)로 변동하는 과정이다.³⁾ 그러나 아시아에 있어서는 거의 예외없이 ‘밖으로부터의 근대화(近代化)’ 밝아 모두 오랜동안의 식민지(植民地)내지 반식민지(半植民地)의 고경(苦境)을 밝아왔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밖으로부터의 근대화(近代化)’는 곧 서양화(西洋化)와 식민지화(植民地化)였다.⁴⁾

이러한 전제하(前提下)에 여기에서 근대(近代)의 시기(時期)는 갑오경장(甲午更張)에서 1970년대말까지 설정한다.

II. 민족(民族)의 수난(受難)과 세시풍속(歲時風俗)의 변화(變化)

흔히 한국의 근세(近世)를 일컬어 수난과 격동의 시대라고 한다. 갑오경장(甲午更張), 일제의 한반도 침략, 8·15광복, 6·25동란 4·19, 5·16등 큼직큼직한 사건만도

1) 柳得恭의 《京都雜誌》가 조선조 正祖 때 金邁淳의 《烈陽歲時記》가 純祖 때 洪錫謨의 《東國歲時記》가 憲宗 때 나와 시기를 각기 달리 하나 이들을 통해 세시풍속의 변동과정을 거의 파악할 수 없다. 現存與否를 가리지 않고 先行의 內容을 인용한 것이 많아 뒤에 나온 책일수록 내용이 늘어날 뿐이다.

2)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 우리말 큰 사전, 서울신문사, 1974.

3) S.N.eisenstade 著, 呂井東·普均 共譯, 近代化: 抵抗과 變動, 探究堂, 1981 p.1

4) 千寬宇, 韓國史의 再發見, 一潮閣, 1974, p 265.

수없이 많다. 이러한 와중에 보다 진보된 기술문명을 앞세운 서구문화는 점진적으로 이 땅에 스며들었다.

식민지강점(植民地強占)(1910年)과 함께 왕권정치에 기반을 둔 봉건제도는 무너지고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한반도를 다스리는 정치규범(政治規範)으로 들어섰다. 왕을 중심으로 왕권정치를 펼쳐가던 독립국가에서 졸지에 밀려온 일제의 식민통치는 이 사회를 광범위한 변화의 국면(局面)으로 몰고 갔다. 기존 사회계층이 점진적으로 해체되고 새로이 재편성되었으며 일제로부터 조작된 가치 및 윤리가 강요되는가 하면 우리의 전통문화(傳統文化)는 날날이 억압되어 그늘진 어둠 속으로 도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일제의 거처거나 혹은 기독교 계통의 선교사 등을 통하여 서구의 근대문명은 ‘신식(新式)’으로 불리면서 전파되었다.

폐쇄적인 봉건사회에서 갑작스레 맞이한 근대문명은 사회 각계 각층에 크나큰 충격을 주면서 각기 다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일부 진보적인 생각을 지닌 이들은 망국(亡國)의 원인을 뒤떨어진 근대화에 있다고 보고 그 수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⁵⁾ 반면 전왕조(前王朝)에 집착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나라를 잃은 울분과 외세에 대한 충격을 교묘히 결부시켜 신문명(新文明)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舊)엘리트층의 움직임과는 달리 사회 일각에서는 새로운 지배 세력인 일제에 접근해서 상층계급으로 부상하려는 이들도 발생했다. 일제와 함께 등장한 이들 친일계층(親日階層)은 몰락하는 구시대(舊時代)의 상층계급을 점진적으로 무너뜨리고 그 이전의 피지배층을 흡수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사회·경제적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한 예(例)로 일제(日帝)에 의해 통감부(統監府) 시대(時代)부터 착수해서 1918년에 끝난 토지개혁(土地改革)으로 인해 총 농지면적의 70%가 일인(日人) 및 한인(韓人)의 소수 지주(地主)에게 넘어가서 대규모의 지주화(地主化)가 이루어졌다.⁶⁾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과거를 거부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지향함으로써 일제의 근대문명, 심지어 생활양식까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스스럼없이 생활양식마저 바꿔버린 이들 친일계층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손과 발이 되면서 모범적인 표본(標本)으로 육성되었다.

식민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돌변하는 분위기와 함께 일제의 침략정책은 한층 가열되었다. 언어말살·창씨개명(創氏改名)·신사참배(神社參拜)의 강요·미신타파 등을 기치로 민족문화를 송두리채 파괴하고 이 땅을 영원한 속국(屬國)으로 묶어두려는 흉계를 꾸렸다.

무기력한 사회에서 일제의 강압적인 침략정책은 파급효과를 엄청나게 불러 일으켰다. 당대까지 전승(傳承)되던 모든 가치·제도·규범이 후진(後進)과 망국(亡國)의 원인으로 몰려 급속히 해체되고 여태까지 살아온 방법이 어리석거나 몽케했던 것으로 파악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전래되어 오던 세시풍속을 비롯한 민족문화는 내적(內的)·외적(外的)박해 속에서 급속도로 사양길을 걸었던 것이다.

일제에 의한 정책적인 민족문화(民族文化)의 파괴 현장을 정월(正月) 대보름의 세시풍속이었던 편싸움⁷⁾을 예로 들어 당시의 회고담에서 한번 살펴보자

5) 이러한 경향은 甲申政變(1884년)·甲午更張(1894년)등을 통해 改革依支를 보여준 일면 ‘개화파’들에 의해 잘드러나고 있다.

6) 金容燮, 收奪을 위한 測量-土地制度, 暗黒의 時代(韓國現代史 4), 新丘文化社, 1971, pp. 97-130참조

7) 편싸움은 石戰(돌팔매싸움)을 말한다. 便殿이라고도 한다.

“세시기(歲時記)에 보면 서울의 편싸움이 어울리던 장소로 만리재와 우수재⁸⁾가 기록되어 있으나 나의 유년(幼年)시절 편싸움이 유명하기로는 남대문밖 굴개현(지금의 봉래동과 서울역 일대)과 동대문밖 무당개울 그리고 서대문밖 녹개천(마포가두)과 문안에서는 하남촌조산(下南村造山)의 편싸움이 이름 높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무렵 내가 직접 관전할 수 있었던 편싸움은 서대문 밖 녹개천에서 어울린 삼개(마포(麻浦))패와 만리동 패거리의 편싸움이었는데 그실 나의 10대(代)시절만 하더라도 서울에서의 편싸움은 벌써 그 명맥이 다할 때였다.

그날 싸움판은 녹개천을 사이에 두고 쌍방이 팽팽히 맞섰는데 양편 앞모리에는 모두 울망줄망한 개구쟁이 때를 못벗은 사내애들이 한몫 자리값을 툭툭히 하고 늘어섰었다. 그 뒤견으로 젊은 장정들이 줄지어 섰다. 머리에는 모두 벌벙거지(솜모자)를 눌러쓰고 몸을 날렵하게 단속하느라고 두루마기 앞섶 양쪽을 들들 말아 올려서 양 귀 주머니속에 틀어 넣었는데 그 때에는 이것을 가리켜 ‘날개를 튼다’고들 하였다. 이들 젊은 장정들의 한 쪽 손에는 계가꿈 보기에 실한 육모방망이 하나씩을 쏘아 들었다. 그들 중에는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물매근이나 바지대넒을 끌러 여기에 돌맹이를 칭칭 말아동이고 연방 팔쪽지를 앞에서 뒤쪽으로 돌리면서 원을 그려 돌팔매질을 하였다.

그러면 이편 저편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아이쿠’하는 비명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곤 했다. 그런데 이 때에 우박비 쏟아지듯 하는 들의 세레보다도 싸움판을 더욱 점입가경(漸入佳境)의 경지(耕地)로 이끄는 구경거리가 있으니 이 싸움판에 끼어든 조무래기 자식들을 찾아나선 아낙네들의 아우성이다.

‘개똥아’ ‘칠성아’ ‘만복아’하는 제지는 금속성의 연타성(連打聲)이 그대로 아비규환의 도가니를 이룬다. 어쨌든 보는 자의 입장에서 한 대목 구경거리로는 일품이었다. 이런 난장판에 뒤어들었다가 어느 놈이 던진지도 모를 돌맹이나 방망이에 맞아 박이라도 터져 죽어도 이판에 ‘살인(殺人) 없다’는 말이 그대로 실감나게 한다. 이처럼 한바탕 싸움판이 잘 어울려 저서 한창 판을 도는 판국에 난데없는 왜놈의 기마(騎馬) 헌병들의 습격을 받은 것이다. 금새싸움판은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기세가 꺾여들어 기마헌병들이 불어대는 호루라기와 내두르는 총검에 쫓겨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싸움꾼이 달아나기 시작하자 어이없게도 싸움판은 파장이 되고 말았다.

그 옛날 ‘삼포왜란(三浦倭亂)’에서의 우리의 투석군(投石軍)의 용맹한 고사(故事)도 무색하게 하필이면 저들 왜병(倭兵)의 제지와 금령(禁令)에 묶이어 그 자취를 영영 감춘바 되었으니 생각하면 이 또한 아이로니칼한 일이 아닐 수 없다.”⁹⁾

이상은 행인(杏仁) 이승만(李承萬)화백의 편싸움에 대한 회고담이다. 진술내용으로 보아 그 시기는 1910년대 후반 전후로 추측된다. 행인(杏仁)의 진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오랜 생활관행(生活慣行)이었던 세시풍속은 일제(日帝)의 한반도 통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정을 강요받았던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그들은 명절에 떡방아간을 폐쇄하고 새 옷을 입고 나오는 어린이들에게 먹칠을 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반면에 일제는 저들의 명절과 그 행사의 의식(意識)을 한국에 이식하여 강요하기도 하였다. 가령 그들의 명절인 천장절(天長節)·명치절(明治節)·기원절(紀元節)등을 국경일로 정하여 갖가지 행사에 한국인을 참가시켰다. 그런가 하면 양력설에는 시메나와 (표승(標繩))라하여 새끼에 굴을 꿰어 대문에 달게하고 단오

8) 만리재는 지금의 만리동 고개, 우수재는 후암동 고개를 말한다

9) 李承萬, 風流歲時記, 中央日報社, 1977, pp 29-31.

절에는 고이노보리(리치(鯉職))라하여 형짚으로 잉어를 만들어 풍선처럼 띄우게 했다.¹⁰⁾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정책 못지않게 한국사회에 문화적인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은 기독교(신구교(新舊敎) 포함해서)의 전파였다. 구한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독교의 전파는 한국사회에 서구문명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 구실을 했다. 그래서 선교를 목적으로 했지만 서양의 술이 시술되고 많은 학교가 세워졌으며 교리의 전파에 의해 서구적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소개되었다.

1885년에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최초의 사학(私學)인 배재학당(培材學堂)을 출발로 해서 이땅에는 신식교육이 등장했다. 구한말에 비롯된 신식교육은 서당식(書堂式)의 교육과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신식교육은 뒷날 독립운동의 요람이 되기도 하며 많은 사회지도자들을 배출해서 서구의 근대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어쨌거나 신식교육의 도입은 한국사회의 문화적인 변동에 크나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 서구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양식¹¹⁾이 흘러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접하는 서구문명(일본을 포함)의 편리함과 유용성(有用性)은 한때 ‘우리 것’의 천시를 낳기도 했다. 그야말로 재래의 찹쌀떡 보다는 모찌(もち, 일본식(日本式) 찹쌀떡)가 맛있고 한복보다는 양복이 편하다는 걸 알아야만 개화된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모든 가치의 우월 기준이 점차 신문명 편으로 기울어 가는데 신식교육을 받은 일부인들은 서구의 근대 대중문화를 최일선에서 수용했다. 이 전의 마당극 대신에 신극(新劇)과 영화를 도입하고 민요(民謠)나 창(唱) 대신 창가(唱歌)를 부르는 급속한 변화가 시도되었다. 또한 일부 지식층은 우매한 국민들을 계몽시켜서 자주독립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기에 이르른다.

1925년에서 1935년 사이에 일어난 농촌 계몽운동은 1925년 2월 YMCA(조선 기독교 청년회)가 서울 근교의 촌락을 대상으로 시도한 것을 시발로 해서 YWCA(조선 여자기독교 청년회)의 활동, 《조선농민》·《조선일보》·《동아일보》등 언론의 농촌운동이 잇달아 일어난다. 이러한 농촌 계몽운동은 동아일보가 1931년 여름방학 때부터 실시한 브나로드 운동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다.¹²⁾

이 당시 계몽단체인 YMCA의 경우는 농촌사회에 협동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생상태를 개선하며 농업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보급하고 부업과 사회생활을 진흥시키며 문맹과 옳지 못한 구습을 타파하는 것을 그 목표로 했다. 당시 이들은 농촌위생사업·농민조합결성사업·농민교육사업·농촌 부업의 진흥등을 위한 갖가지 세부적인 농촌계몽사업을 벌였다. 또한 여자 기독교 청년회인 YWCA역시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한 학원을 개설하고 <조선농촌청년(朝鮮農村靑年)>이라는 월간지를 발행하는 등 광범위한 농촌계몽사업을 펼쳤다.¹³⁾

이러한 기독교 계통의 계몽단체가 전국적(全國的)으로 농민운동을 활발하게 펼쳐가는 가운데 다시 주목되는 것은 ‘구습(舊習)의 타파운동’이다. 이때 이들이 타파해야 할 구습의 기준을 명확한 자료가 두시받침되지 못해도 추측컨대 서구식 근대문화를 중심으로 평

10) 權五惇, 風俗에 얽힌 抒情- 歲時名節, 新生活 100년(韓國現代史7), 新丘文化社, 1971,p.99

11)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지만 지금까지 통념적으로 그렇게 일컬어 졌다. 서구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기독교와 직접적인 관련을 지니고 있다.

12) 朴相圭, 農村으로 돌아가라 - 農村啓蒙運動-新社會 100년(한국현대사 8), 신구문화사, 1971,pp 335-352 참조

13) 자세한 내용은 앞의 주 12) 참조

가한 듯 하다.¹⁴⁾ 그래서 그 이전 사회에서 관행(慣行)되던 구습(舊習)(요즈음 민속(民俗)으로 부각되는)은 근대화의 저해요인으로 평가되면서 파괴되어야 할 궁지에 몰린 것이다.

기독교의 활발한 선교와 더불어 시행한 농촌 계몽운동가(YMCA·YWCA)들에게는 설날의 다례(茶禮)를 비롯한 명절행사 및 기제사(忌祭祀), 풍년을 기원하고 그 해의 운(運)을 비는 모든 의례(儀禮)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미신이요 이단적인 행위였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전근대성의 증거요 미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탈피해야만 가난과 억압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과학적’인 설득이 계몽의 한 방법으로 굳어져 계속 진행되었다. 세시풍속을 보더라도, 정월(正月)의 다례(茶禮)·안택(安宅)·홍수매기·풍점(豐占)등을 비롯하여 삼짇날·단오(端午)·유두(流頭)·칠석(七夕)·백중(百中)·추석(秋夕)·상(上)달(시월(十月)), 그리고 동지(冬至)와 같은 세시명절 때에 삶에 영속을 위해 풍요(豐饒)와 제액초복(除厄招福)을 비는 각종의례적(儀禮的)인 행사가 그들에게는 곧 이단이기 때문에 미신시했던 것이다. 그들이 기도하는 신(神)은 우리의 민간신앙(民間信仰)에서처럼 다신(多神)이 아니라 유일신(唯一神)이다. 그러기에 그들의 신관념(神觀念)은 바로 그 유일신에만 적용되고 우리의 신관념(神觀念)은 마땅히 이단시되고 미신시된 것이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화 정책과 모방적인 근대화의 추종으로 자주독립의 의지를 배양시키려는 일부인의 상반된 노력이 결국은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박해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불운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세시풍속의 전승에 일제(日帝)가 추진한 양력의 강압적인 사용¹⁵⁾ 역시 큰 영향을 미쳤다.

농경을 위주로 하던 사회에서는 양력보다 음력이 보다 더 적합한 것이었다. 더욱이 우리의 세시풍속이 농경 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음력은 그 시간적인 기준이 되어왔던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해져 있던 음력이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철회됨에 따라서 양력의 사용은 관청·학교·교회등을 중심으로 그 사용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혀 갔다. 물론 초기의 경우에는 그 사용이 소수에 국한되었겠지만 점차적으로 보편화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삼월(三月) 삼짇날이라든가 칠월(七月) 칠석(七夕)날 등과 같이 특정한 라짜를 통해서 기억하던 대부분의 세시풍속은 정월(正月)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밖에도 정월(正月) 초하루, 이월(二月) 초하루(중화절(中和節)·또는 머슴의 날)와 같이 달력의 기점(起点)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며 삼짇날(삼월삼일(三月三日))·단오(端午)(오월오일(五月五日))·칠석(七夕)(칠월칠일(七月七日))·중구(重九)(구월구일(九月九日))와 같이 중일(重日)이 있다. 또한 정월(正月)대보름·유두(流頭)(六月 보름)·백중(百中)(칠월(七月)보름)·추석(秋夕)(팔월(八月) 보름)과 같이 보름 명절이 있다. 특히 보름달(만월(滿月))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어서 농경국가에서 만월과 풍년을 동일시(同一視)한다. 세시풍속이 농경의례로 정착했기 때문에 달(월(月))을 중심으로 하여 월력상(月曆上) ‘특정한 날’로 설정했으나 산업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관념도 약화(弱化)되었다.

14) 이것은 기독교의 선교적·도덕적 동기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15) 우리의 曆法은 태음력인 時憲曆을 사용하다가 1986년 1월 1일(양력·음력으로 1895년 11월 7일)부터 태양력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궁중에서 先王에 대한 삭망제사와 탄생축하에 대해서는 1년이 못되어 그해 8월 21일부터 음력인 시헌력을 따르기로 했다. 이은성, 曆法의 原理分析, 정음사, 1985 p. 340. 일제에 들어서 강압적으로 양력이 쓰여졌는 데 新正의 강요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이전처럼 농경사회에서 세시기(歲時記)를 중심으로 한 휴일(休日)의 연중 생활 양식이 점차 무너지면서 일주일에 주기적으로 맞이하는 휴일(休日)의 개념이 새로이 발생하여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 이것은 양력이 일제(日帝)에 의해 그 사용을 강요당한 때부터 일정한 지체기를 거치면서 그 일반화와 함께 세시풍속의 다양한 관행(慣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세시풍속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속이 그 전승과정에 갖가지 장애가 부딪치는 가운데 ‘새로운 세시풍속’이 생성(生成)되기도 했다. 그 중에 하나가 해마다 소학교(지금의 국민학교)에서 열렸던 운동회일 것이다.

운동회는 요즈음 운동경기(또는 체육대회)와 달리 지역사회의 축제였다. 학생과 학부모를 주축으로 개최되지만 그 학교 인근의 주민들이 구경 혹은 함께 참가하기 때문에 혼잡을 이루었다. 따라서 그 주변에는 갖가지 행사들도 모여들어 지역사회 축제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글때(그때)는 평은 국민학교서 운동회가 열렸다 그뎨 면내 사람들은 기관장, 유지 할 거 없이 다모였지요(모였지요). 달리기·씨름·줄맹기기거튼(같은) 거는 어른들도 참가 하고...<중략> 그날 씨름에서 일등한 사람이 마을에 들서면(들어서면) 큰 경사나 만난 양 그 참 대단했어요...<중략>...16)

학교를 통한 새로운 교육양식의 보편화는 운동회라는 새로운 양식의 지역축제를 발생케 했던 것이다. 8·15광복이후에도 군민 체육대회등으로 점차 그 양상이 바뀌면서 계속된 운동회는 우리의 문화사에서 돌발적으로 출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운동회 설·단오·백중등의 세시기에 중요한 놀이였던 줄다리기·씨름 등이 행해졌으며 순전히 학생들만이 참가하는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소속집단(자기동네)의 명예를 걸고 분전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통적인 세시놀이의 현장과 근접(近接)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세시놀이가 신식교육의 한 제도를 통해서 새로이 적용했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기독교의 확산으로 부활절·추수감사절·크리스마스 등이 새로운 명절로 등장하면서 그에 따른 많은 풍속이 새롭게 자리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일제가 대규모의 전쟁을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은 경제적 수탈이 극심함에 따라 농촌의 이농인구가 확대되고 강제징용·놋그릇 징발¹⁷⁾ 등이 심해져서 세시풍속은 더욱 사양길을 걸었던 것이다.

이렇듯 35년이라는 일제의 침략 속에서 많은 생활에 변화가 왔다. 하지만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온 서구의 근대문화는 대부분 일제의 거쳐 왜색화되거나 또는 전체에 비해 아주 소수에 의해 수용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파급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의 전통문화는 일제의 정책적인 해체에 의해 또는 그에 따른 단편적이고 빈곤한 인식에 의해 축소와 내지는 천시의 눈길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36년간 배양되어 온 전통문화에 대한 이런 류의 안목은 8·15광복과 정부수립이후 근대화가 시도되는 과정에 다시 영향을 주게 되었다.

16) 1985년 7월 6일 金落鎮9남. 76) 제보, 경북 영풍군 평은면 금광리 413

17) 태평양 전쟁시 日帝는 무기 제작을 위해 우리의 놋그릇을 모조리 징발해갔다. 당시만 해도 놋그릇(식기를 비롯한 각종 부엌용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정 器物이었다. 6·25동란으로 피난을 하게되자 많은 가정에서 놋그릇을 깊이 각추는 모습(집의 마당을 깊이 파서 묻는 등)을 필자 자신이 목격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어린 생각에 그저 중요해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日帝의 징발에 의한 충격(귀중품을 빼앗기는)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광복(光復)이후 근대화(近代化)에 따른 변동양상(變動樣相)

일본이 패전하자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독립운동과, 전승국의 도움에 힘입어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민족의 앞길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광복과 함께 밀려온 외세에 의해 신탁통치라는 명분으로 분단되어야 했고 민족의 비극인 6·25도 겪어야 했다. 이를 통해 이른바 분단이라는 민족적 시련이 새롭게 도래했던 것이다.

분단이라는 사실을 짓혀 두고라도 정부수립 4·19, 5·16으로 이어지는 정치적인 큰 일들은 하나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이 사회에 크나 큰 변동을 몰고 왔다.

이러한 한국의 최근세(1945년 이후)는 산업화를 기준으로 양분해 볼 수 있다. 즉 60년대를 기점으로 전·후기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후기는 전기에 비해 본격적인 산업화·공업화가 이뤄진 만큼 두 사회는 상당히 이질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광복 이후 급변하는 사회상황에 세시풍속이 적응하는 양상을 양분하여 살피고자 한다.

1. 산업화(産業化)이전의 변동양상(變動樣相) (1945-1960년)

광복과 잇달아 도래한 분단(分斷)이라는 사실은 정치적인 혹은 지역적인 분단만은 아니었다. 민족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뤄진 분단은 일제에 의해 식민자본의적 산업 혹은 만주칠락의 전진기지로, 알량하게나마 육성되어 온 산업의 단절마저 가져왔다.¹⁸⁾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전진기지(민주를 향함)로 적합한 3·8이북의 입지조건은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서 1930년 이후부터 급속한 공업화를 이루게 했다. 그에 반해 3·8이남은 농업이 주산업으로서 전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제에 의해 조작된 산업의 불균형 아래에서 맞이하는 분단은 남한의 산업을 전근대적인 상태에 고착시키고 6·25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더욱이 광복과 함께 조선은행권의 남발과 살포(撒布)는 엄청난 인플레이를 유발시켰고 19) 치안의 기능이 마비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었던 것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남한은 단독정부의 수립을 통하여 서구 자본주의 도입할 계기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민족 최대의 비극인 한국동란(1950. 6. 25-1953. 7. 27)이 발발함에 따라 다시 한번 엄청난 격랑을 겪게 된다. 광복과 함께 일어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파생되는 여파는 50년대 말까지 갖가지 형태로 사회 구석구석에 미치게 된 것이다.

일제시대와 비교해서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식민상태에서 독립하여 민주국가를, 사회적으로는 일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열린 사회를 지향했다. 그러나 이 시기 역시 농업을 위주로 하는 전근대적인 상태였으며 1950년대의 토지개혁은 그 성과가 미약해서²⁰⁾ 전반적인 경제가 후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전쟁 혹은 새로이 등장한 민주화의 이념실현으로 인해서 사회적 신분이동은 정치·경제적 지위의 변수로 등장한다.

이렇듯 전개되는 정치·사회·경제적인 변화 속에서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른바 서구화의 물결이다. 특히 6·25동란을 전후해서 급격하게 전달되는 서

18) 林鍾哲, 戰爭을 위한 工場地帶-軍需工業 基地化, 光復을 찾아서(韓國現代史5), 新丘文化社, pp. 228-230

19) 金成植, 다시보는 太極旗-8·15 解放, 앞의 책 韓國現代史5, p. 520

20) 이우재, 한국 농업의 현상과 구조, 한국사회의 재인식 1, 한울총서 32, 도서출판 한울, 서울, 1984, pp 319-32

구의 물질문명은 이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 넣으며 후진이었다는 자각과 함께 새로운 사대주의를 불러 일으킨다. 특히 전쟁의 구호물자를 주로 한 미제(美製)물건의 상륙은 갖가지 웃지 못할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전 국민들에게 그 위세가 파급되었다.

이러한 파급의 효과로 한 때 ‘미제(美製)’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의 대명사였으며 좋은 물건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마저 지니게 되었다. 21)

이 뿐 아니라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는 언론매체(신문·라디오·잡지)를 통해서 전달되는 서구의 현실은 일제의 압박과 수탈에서 갖 헤어난 상태에 비추어 ‘지상의 낙원’이었다. 그래서 서구의 모든 제도·철학·가치관등은 미제 물건만큼이나 편중된 평가를 받으며 우리 사회의 모범으로 등장하게 된다. 결국 한국의 후진(後進)은 모든 점에서 서구(미국을 중심으로 한)를 본 받아야 탈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의 전파도 교회를 통한 구호물자의 배급과 함께 급속도로 이뤄진다. 이의 한 다면을 다음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다.

“화재나 도적은 달갑지 않으나 교회 많이 세워진 것은 반갑고 대견한 일이다. 아니게 아니라 성당과 예배당은 어느 도시, 어느 길목에서든지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6·25를 겪고 나서부터는 수 많은 동포들의 거칠어진 마음과 상처 심한 가슴이 기독교에 의하여 되살아난 흔적은 너무나 뚜렷하다.

뒤를 이어 밀려드는 외국 교우(敎友)들의 푸짐한 구호품은 그 얼마나 대견 했던가. 어느 입바른 이는 6·25후 급증된 신자 중에는 구호물자를 바라고 입교(入敎)한 이가 너무나 많이 섞여 있다고 개탄도 하지만, 이에 대하여 성직자들은 자못 태연했다. 구호물자를 얻기 위하여 영터리 입교(入敎)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지는 것은 구호를 하는 이의 취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백명 중에 한명이라도 진실한 신앙을 얻어, 올바른 길을 찾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것이다.

내가 존경하는 어느 미국인 신부는 구태여 입교한 사람만을 택하지 않고 순제 일반 빈민을 찾아가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크게 바라고 일부러 입교한 분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했지만, 이런 경우에 실망하는 이는 입교할 때부터 잘못 됐다는 것이다. 종교를 널리 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요, 낚시밥을 던져 고기를 낚는 식의 전교(傳敎)는 합당치 않다는 결론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회라고 불리는 기독교(천주교·예수교)는 해방후 교우(校友)가 어지간히 늘어났다. 내가 20안팎 때만 해도 서울에서 성당하면 약현(藥峴)·명동(明洞)정도이고 예배당 하면 정동(貞洞)·상동(尙洞)·승동(勝洞)·연동(蓮洞)정도였다. 그렇던 것이 이제는 시내 어디를 가든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교회이다.”22)

이 시기에는 특히 교육인구가 증가했다. 그 예로 1945년부터 1979년까지 30여년동안 학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194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중학

21) 6·25이후, 1950년대 초기만 해도 국미학교 어린이들의 연필마저 美製 또는 日製에 의존할 정도였는데 이 무렵 국산연필이 등장하게 되었다. 학교는 물론 국가에서도 범국민적으로 國産品(학용품을 비롯한 여러 비품)에용캠페인을 전개했었다. 1955년 필자가 국민학교(4학년) 시절 학교에서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주제로 웅변대회르 개최, 필자도 참가했던 기억이 있다.

22) 梁王春, 經濟開發과 社會移動 및 地位義士의 變化, 産業社會의 大衆文化(下), 韓國精神文化院, 1983, pp.35-39

교(中學校)는 약 18배로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그 다음이 고등교육기관(高等敎育機關)(전문대학(專門大學)·초급대학(初級大學)·교육대학(敎育大學)·대학(大學) 및 대학원(大學院)포함) 으로서 약 12배의 증가율을 보이며 국민학교(國民學校)가 약 2배로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수를 보더라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으로서 약 53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교원수(敎員數)에서 보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중·고등학교로서 약 48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낮은 증가율은 유치원과 국민학교의 교원으로서 약 6배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은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지위의 고수 혹은 상승의 유일한 기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대화의 첩경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인구의 확산이 급속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일제의 식민통치적 목적에 이한 문맹퇴치와는 달리 국가의 백년대계로 중요시 되었거나 민족의 수난기를 거쳐 갑자기 ‘열린 세계(世界)’속에서 일어나 현실인식이 국민적인 자각으로 이어져 뒷받침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의 경제수준에 비해 교육인구의 확산이 엄청나게 진행되어 이는 후일 공업화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허나 이러한 교육도 부분적으로 일제의 잔재가 이어지거나 검토 없는 서구화의 지향으로 사회 문화적인 변동에 한 몫을 하게된다.

광복과 전쟁 그리고 그 복구를 진행하는 이 때에 세시풍속은 일제에 의해 강요되었던 것²³⁾들은 그 자취를 감춰가고 서양의 크리스마스(12월25일)가 법정 공휴일로 되면서 새로운 명절로 정착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서구의 종교적 축일(祝日)인 크리스마스가 한국사회에서 급속하게 전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급속한 기독교의 전파, 정부기관·학교들의 이중에서 양력의 사용은 일제에 이어 공화국 때에도 기준력으로 채택되었다. 그렇게 됨에 따라 크리스마스는 대부분의 사회조직에서 ‘한 해의 마무리를 시작하는 날’로서 법정 공휴일이라는 제도적 혜택에 힘 입어 한국사회에 확산되어 갔다. 더욱이 대부분의 방학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용이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라는 새로운 명절의 감각이 대도시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갔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확산된 크리스마스가 전후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도시인구의 증가, 기독교의 확장으로 인한 교회의 증가, 또한 이 시기의 서구지향적인 사회분위기에 힘입어 더욱 그 확산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외래종교, 문화적인 양상의 새로운 정착으로 보아야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크리스마스가 양력을 사용하는 사회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축일(祝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음력을 사용하던 우리사회에는 이와 비슷한 것이 동지(冬至)가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1월조 동지의 풍속을 보자.

“동짓날은 다음 해가 되는 날이란 뜻으로 작은 설(아세(亞歲))이라고 한다. 이 날은 팔죽을 쑤는데 찹쌀가루로 새알 모양을 덕을 만들어 그 죽 속에 넣고 꿀을 타서 시절 음식으로 제사에 쓴다. 그리고 팔죽물을 문짝에 뿌려서 상서롭지 못한 것을 제거한다...<중략>...

관상감에서는 달력을 올린다. 그러면 황색과 백색으로 각각 장식된 달력들을 모든 관원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달력에는 ‘동문지보(同文之寶)’(천하가 통일되어 평안하라는 뜻)

23) 權五惇, 앞의 글, 風俗에 얽힌 抒情-歲時名節, pp . 99.

라는 글을 쓴 임금의 도장이 찍혀 있다.

각 관청의 아전들도 각기 친한 사람을 두로 문안하는 것이 상례이다. 사조(史曹)의 아전들은 자기가 임명장을 써준 사람이 직무에 취임하면 그로부터 당참전(堂參錢)(수령이 새로 나가거나 또는 다른 고을로 옮길 때 단골 서리에게 주는 돈)을 받는다. 그러면 그 아전은 벼슬아치에게 청장력(靑粧曆) 한권을 기증한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옛날부터 단오날에는 관원이 아전에게 부채를 나눠 주고 동짓날에는 아전이 관원에게 달력을 바친다. 이를 하편동력(夏扁冬曆)이라 한다. 이렇게 아전에게 받은 달력을 관원은 자기 고향의 친지·묘지기·농토 관리인에게 나눠준다.

내의원에서는 계피·후추·설탕·꿀을 쇠가죽에 섞어서 삶아 기름이 엉기도록 만든다. 이것을 전약(煎藥)이라고 하는데 동짓날 진상한다. 각 관청에서도 전약을 만들어서 나누어 가진다.”

이상과 같이 동지는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인 설보다 조금 일찍 있는 ‘작은 설’이었다. 말하자면 한 해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는 단계였던 것이다. ‘설’ 보다는 작지만 팔죽을 쭈어 제사를 지내고 벽사(辟邪)하여 온 가족이 하루를 단란하게 보내는 축일이었던 이날에는 관청에서도 문안을 드리고 달력을 나눠주는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전통사회에서 해마다 맞이하던 동지도 그 해를 ‘마무리 짓는 첫날’(작은 설)이며 축제의 날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와 동지는 공통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같은 달에 3-4일 정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이질적인 풍습(風習)은 혼재하면서 양립하게 되었다.

크리스마스의 정착과 더불어 카드·연하장을 보내는 풍속이 이 땅에 자리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전의 동지는 작은 설로서 인사를 드리는 날이었다. 그후 상업화의 초보적인 단계 (전쟁의 복구를 위한 것이었지만)에 돌입한 당시에만 해도 인간관계가 그 이전처럼 지연(地緣)을 중심으로 좁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조 말까지만 하더라도 가까운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문안을 드리던 풍속이 우편제도의 확장과 인쇄술의 발달 그리고 서구의 크리스마스 풍속과 함께 어우러진 것으로 보인다. 즉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월조(正月條) 설날 풍속에는 세함(歲函)·문안비(問安婢)등이 있다. 설날 사돈집에서 부인들이 근친하는 뜻으로 하녀를 보내어 새해 문안을 드리는데 이 하녀를 문안비(問安婢)라 한다. 그리고 설날 각 관청의 하급 관리와 군아(郡衙)에 딸린 하급 장교나 나졸들은 종이를 접어서 그 위에 이름을 적어 선생이나 옷사람의 집에 드리면 그 집에서는 대문 안에 옷칠한 쟁반을 좋아두고 이를 받아들인다. 이것이 ‘세함’인데 이를 오늘날 의 연하장 또는 크리스마스카드²⁴⁾와 관련시킬 수 있다.

이와같이 서구의 크리스마스 풍속의 강화현상은 월력상에서 적응력을 잃은 동지가 그 외적(外的)인 형태인 크리스마스로 대체되어 변화 적응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도 이 시기에 대도시의 교육시설 편제 혹은 이농인구의 도시주변 편입 등으로 도시화가 일어났으며 사회조직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팽창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도 전체적으로는 전쟁의 복구에 시급했던 터라 60년대의 사회적 상황은 아직도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 중심의 것으로 대변된다.

24) 연하장과 크리스마스 카드는 겹치는 경우가 많다.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낼 경우 성탄과 새해 인사말을 함께 쓴다

이렇게 전근대적인 농업이 계속되었기에 이 당시에는 농경생활에 기반을 둔 전래의 세시풍속도 대체로 커다란 변화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외지(外地)로 떠난 사람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서 설이나 추석에 맞아 대거 귀향하는 새로운 명절의 양상이 시작되기도 했다.

2. 산업화(産業化)이후의 변동양상(變動樣相)(1960-1979년)

196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산업화(工業化)라는 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이다. 그래서 60년대 이후는 산업화 또는 산업화시대라 한다. 사실상 한국사회에서 산업화, 도시화등의 본격적인 사회구조적 변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1960-70년대의 일이다. 이 기간동안에 한국사회는 농촌사회로부터 도시사회 및 공업사회로의 질적변화를 일으켰다.

제 3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산업화가 지향되었다. 1962년부터 시도된 경제개발계획은 사회 경제적으로 유해한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지만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성을 높여 양적 확대와 고도성장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경제생활이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정부 주도로 추진된 제 1차 -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사회에 크나큰 변동을 유발시켰다. 더욱이 1971년도부터 대규모의 농촌사업인 새마을 운동은 민속전승(民俗傳承)의 현장에 이뤄진 일련의 개혁으로 주목을 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주도된 정부 주도의 사업들이 끼친 사회적 영향은 산업구조의 변화, 에너지 사용의 증가, 조직사회의 증대, 도시화, 인구의 지역·직업·계층적 이동, 가족제도의 변화, 문화시설의 발달, 고등 교육 인구의 증대 등 다양한 변동으로 표출(表出)되었다. 또 민속전승의 현장으로 볼 수 있는 농촌의 경우에는 인구의 변동, 농가 실질소득의 증대와 이에 따른 과학적·문화적 시설의 증대, 가치관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새마을 운동은 영농기술원조, 농촌환경개선, 보건·교육·사회조직의 개혁 등을 기치로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갔다.

농촌사회에서 급격히 시도된 일련의 개혁은 농촌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했다. 우선 농촌사회의 지도층이 그 이전보다 비교적 젊은이로 옮겨갔고 관주도에 의한 일률적인 개혁으로 인하여 마을 사회의 개별적인 특성이 억제되고 전국적으로 일반화되는가 하면 과학 문명의 보급에 기인하여 외부사회와 접촉이 점차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시기의 농촌사회에 대중 매체가 급증한 것은 그 내적(內的)인 변화(變化)에 큰 기여를 하였다.

농촌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는 세시풍속의 전승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그 이전(以前)사회(社會)에서는 농사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은 세시의례(歲時儀禮)들이 새로운 영농기술의 보급과 대중매체를 통한 새로운 평가-흔히 미신이라는-를 받음으로써 대부분 도태 또는 단절의 길을 걸어야 했다. 실상 같은 시기에 주기적으로 치르던 의례 즉 정월(正月)의 안택(安宅)·신수점(占)·홍수매기·동제(洞祭)를 비롯하여 오월(五月)의 단오굿·시월(十月)의 성주굿등을 통해 한해의 풍요와 복(福)을 비는 것은 전통사회에 있어서 보편적인 세시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들 세시의례들이 일제(日帝)의 전통문화 말살정책에 따라 ‘미신시’되어 파괴되었고 그 후에는 근대화(近代化)내지는 산업화(産業化)의 차원(次元)에서 매몰되어 갔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은 초가(草家)를 없애는 것과 동제당(洞祭堂)(신당(神堂)=미신이라는 등식)을 없애는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질 정도였다.²⁵⁾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던 것은 양수기의 사용으로 해마다 정초(正月初)가 되면 농점(農占)을 치던 것도 관상대의 과학적인 예측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그 필요가 상실되었던 것이다. 특히 의식개혁의 일부로 추진된 ‘미신타파’는 그 전승(傳承)의 필요성이 줄어든 많은 민속(民俗)에 더욱 강한 타격을 주게 되었다. 그야말로 급진적인 개혁의 길목에서 전승문화(傳承文化)는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었다. 숙명적인 가난은 그로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은 농촌에서 일어나는 혁신의 바람에 편승해서 민속의 전승에 막대한 누를 끼쳤던 것이다. 여기에다 에너지 개발을 위한 댐의 증설을 도시 지역의 확대, 대규모의 공단 조성 등 일련의 국가적인 사업도 민속(民俗)의 전승현장(傳承現場)을 송두리채 매몰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차 산업 위주에서 2,3차 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위해 시도된 국가산업의 전환을 필두로 일어난 한국사회의 연쇄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는 세시풍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한 해의 일정(日程)으로써 그 해를 운수다복(運數多福)하고 풍요(豐饒)로 이끌려는 세시풍속이 그 대부분 비과학적이고 근거없는 미신이요, 전근대적인 습속으로 인정되어 개혁의 대상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전환 가운데서도 설날·추석과 같은 일부 주요 명절은 단절되지 않은 가족주의에 편승해서 비교적 그대로 전승되었다. 대다수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 이농인구는 ‘다른 때는 못 들러도 명절에는 꼭 고향에 간다’는 새로운 강박관념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이 두 주요명절도 결코 순탄하게 전승되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설날(구정(舊正))은 우리 민족의 수난의 역사와 나란히 할 만큼 수난과 격동을 겪어왔다.

일제(日帝) 때에는 그들의 방식대로 태양력에 따른 양력과 세를, 그리고 이는 광복 후 까지 계속 이어졌다. 특히 경제적인 여건을 들어 이중과세를 금했으며 산업화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외국과의 무역 통상관계를 들어 신정(新正)을 권장하기도 했다.²⁶⁾ 구정(舊正)을 지내는 것을 금기로 여겼기 때문에 설을 세는 사람마저 쉬쉬하며 내세우기를 꺼릴 정도였다. 말하자면 내 명절을 내가 지내면서 부끄러워하는 촌극(寸劇)을 벌인 셈이다.

그러나 풍속이 오랜 시간을 통해 정착하듯이 이렇게 정착된 것은 하루 아침에 어떠한 규범이나 제도에 의해 단절될 수는 없다. 설사 외적(外的)으로는 단절이 가능해 보이나 내면(內面)에서는 면면히 흐른다. 우리는 이를 구정(舊正) 풍속을 통해 익히 보아왔다. 그래서 결국 80년대에 들어 구정(舊正)이 ‘민속(民俗)의 날’이라는 궁색한 이름이 붙여지고 1989년 음력 정월(正月) 초하루부터 드디어 본명(本名)인 ‘설날’을 찾게 되었다.²⁷⁾

이와 같이 설과 추석으로 편중되는 세시풍속의 집중화(集中化)는 대체로 두 가지의 원인에 의한 것이었다. 먼저 근대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였지만 국가의 이념만은 ‘충(忠)’으로 고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충(忠)’의 고대국가에서 근세 이전 조선조까지 이 사회를 이끌어오던 바탕이었다. 특히 조선조에서부터 유교(儒敎)가 국가적인 이념으로

25) 물론 아직도 전통적인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正月보름을 전후하여(마을에 따라 삼월 삼짇날이나 重九등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洞祭를 지내고 있으며 특히 1970년대 들어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각성에 의해 민속극·巫俗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도 지극히 부분적이며 또 지나치게 단면을 강조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장기적이고 폭 넓은 안목에서 살펴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6) 국제적으로 新正이 통용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때에 맞추어서 쉬고 舊正 때에는 외국에서는 모든 일을 하므로 우리 역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무역 收支에 차질이 생긴다고 했다.

27) 그래도 도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는 70-80년만에 설날을 찾아다며 떠들썩 하기도 했다.

채택되면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충(忠)과 효(孝)를 확대시켰으며 충과 효를 매개로 학문·도덕·문화등 모든 사회의 가치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최고의 선(善)으로 존중되어 오던 충(忠)과 효(孝)는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갖가지 사정으로 인해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도 기본적인 효는 근대화는 한국사회에서 그 해석이 새롭게 시도되었을 망정, 그 바탕에는 강하게 깔려왔기 때문에 조상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설과 추석은 어떤 의미에서 그 적응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근대화(近代化)로 인한 사회조직의 거대화(巨大化)는 필연코 표준화(標準化)되고 규격화(規格化)된 생활양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근대화에 따른 한 측면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세시행사(歲時行事)를 통한 휴식에도 산업사회의 구조상에 따르는 제재(制裁)로 표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대화 이전의 사회에서는 설과 추석 만큼이나 큰 의미를 지녔던 정월(正月) 대보름과 단오(端午)가 각각 급속한 축소를 경험하게 된다.

근대 이전인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한 해를 시작하는 설과 함께 대보름은 큰 명절이었다. 이는 농업을 주로 하는 사회에서 달(월(月))과 뉘 수 없는 관계²⁸⁾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근대 이전에 설과 대보름의 세시기는 한 해에서 가장 한가한 때였다. 그래서 설과 보름 사이에는 많은 행사들이 밀집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근대화되어감에 따라서 이러한 세시풍속은 설날만 명절화 됨에 따라 그 리듬이 끊어진다. 즉 외지(外地)에서 설을 지내러 오는 사람들은 조직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2-3일의 휴가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전의 농경사회에서 맞이하던 설·보름 사이에 이어지는 축제 분위기가 사라진 것이다. 오히려 설을 전후해서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가령 귀향객들이 되돌아 가고 나면 마을은 그 이전보다 더 한산한 느낌을 주기 마련이다. 그래서 정월(正月) 대보름은 마을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 예전 같이 달(월(月))에 대한 믿음도 없는 채 한산하게 맞이 한다.

여기서 덧붙여 볼 얘기가 있다. 실상 구정(舊正)이 국가적이 차원에서 공휴일(公休日)로 정해지기 전에는 구정의 귀향객은 대체로 근로자들이라든가 자유업을 하는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었다. 회사원이라든가 공직자는 어쩔 수 없이 신정(新正) 휴가를 보내는 일이 허다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단 구정을 설로 지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논의한 것이다.

추석(秋夕)은 원래 수확기에 그 해의 농사를 조상에게 감사하는 세시풍속이다. 이는 고대국가(古代國歌)때부터 전해오는 중요한 명절이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는 그해에 처음으로 수확한 ‘수지’(올벼·초수(初穗))로 제사를 지낸다.

근대(近代) 이전(以前)까지만 하더라도 벼의 성장이 늦어져 수확이 되지 않으면 중구절(重九節)(구월구일(九月九日))에 제사를 지냈다. 이는 지방에 따라 혹은 기후에 따라 추석이 뒤로 미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대사회에서 사회조직의 확대는 8월 한가위만을 수확제(收穫祭)로 고착시켜 표준화했다. 추석이 미루어지는 실례(實例)를 행인(杏仁)의 회고담을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자

“추석을 한가위(가배(嘉俳))로도 흔히 병칭(竝稱)해서 부르게 되는데 특히 농경(農耕)을 본(本)으로 삼던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수확되는 그해의 초수(初穗)를 조상(組上)의 영전(靈前)에 바치는 풍속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해마다 추석 때면 궁항하중

28) 농경과 달(月)의 관계는 대단히 밀접하다. 특히 대보름의 만월은 풍요를 상징하며 그중에서도 첫 만월인 正月 대보름과 농사의 수확기인 八月보름을 중시했다.

(窮鄉下中)에 이르기까지 신곡(新穀)으로 술을 빚고 백과와 돼지, 닭을 잡아서 즐기니 ‘더도 말고 늘 가위날만 같아라’하는 속담이 생겨날 정도로 가위날이 즐거운 명절임에도 두 말할 나위도 없겠다. 본래 추석이 천신제(薦新祭)(농공(農功) 추수(秋收) 감사제(感謝祭))로서도 그 의의가 큰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러한 천신제가 지방에 따라서는 그 사정을 약간씩 달리하는 것을 엿보게 된다. 추석이 일반적으로 성행되기는 중남부지방(中南部地方)이고 북부지방(北部地方)에서는 추석보다는 단오절(端午節)을 보다 크게 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수도재배(水稻栽培)에서 오는 경작(耕作)에 따른 기후조건과도 크게 관계가 있고 특히 경북(慶北)지방의 서북부(西北部)지역에서는 1년 수확기(收穫期)가 추석 때 보다는 아무래도 늦어지게 마련이어서 조령(祖靈)에 올리는 천신의 행제(行祭)를 중양절(重陽節)(음력 9월 9일)에 가서야 올리게 되므로 이 날이 곧 농공추수(農功秋收) 감사제(感謝祭)에 맞먹게 되서 명절답게 즐긴다고들 한다.”²⁹⁾

이렇게 설과 추석으로 명절이 압축되어 표준화됨에 따라 단오(端午)는 굉장히 큰 명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그 대열에서 이탈되어 그날의 풍속들마저 잊혀져 가고 있다.

이밖에도 양력사용은 한국사회에서 이중과세(二重過歲)라는 현상을 등장시켰고 대도시의 성장과 기독교의 확산은 크리스머스를 더욱 더 큰 명절화하기에 이른다.

근대 한국사회에서 맞이한 산업화(또는 공업화)라는 근대화의 양상은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변동을 일으켰다. 어떤 의미에서 산업화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그 어느 변동적인 유인(誘因)보다 많이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이러한 추세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금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도시의 학교(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주목할만 하다.

IV. 맺음말

수난·혼란·격동의 시대로 표현되었던 한국의 근세는 근 1세기에 걸친 사회·문화변동의 시기였다. 일찍이 접할 수 없었던 서구와의 접촉은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크나큰 변동을 잇달아 몰고 왔다. 이러한 와중에 전시대의 생활양식은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그 적응력을 잃고 근대화라는 급격한 변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자의반, 타의반으로 도태되는 양상마저 빚었다.

일제의 침략정책의 하나로 서구문화의 문화적 충격, 그리고 산업화의 추진과 농촌개발이라는 국가정책적인 차원의 변화에 마저 연루되어 전시대의 민속은 변형 내지 도태되었다. 물론 민간의 생활사에서 점차적으로 사라져 가는 옛 풍속을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혁신의 와중에는 해서는 안 될 자해행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도 세시풍속을 대상으로 했지만 선별적으로 두드러진 현상의 변동과정을 살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나 사회적(社會的)인 변화(變化)와 문화(文化)(민속(民俗))적(的)인 변화가 실제의 현상을 대상으로 살폈을 때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성현(聖賢)도 시속(時俗)을 따른다’는 옛말처럼 세시풍속도 시속(時俗)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다. 물론 이 글에서 얻은 변동적인 양상을 통해 미래의 양상을

29) 李承萬, 앞의 책, 風流歲時記, pp116-117

예견하기는 힘들다. 지속적으로 세시풍속의 변동적인 양상에 관심을 기울이면 어느 정도의 예견은 가능하리라 본다. 그리고 이 글에서 민속 도태(淘汰)·단절(斷絶)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민속은 민족의 생활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다만 이 글에서 민속(세시풍속)은 근대 이전의 것으로 과거라는 시제성(時制性)이 내포된 것으로 쓰였기에 궁색한대로 그러한 표현을 했음을 덧붙인다.